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III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부제: 성경에는 자랑스런 역사가 없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세에 죽으매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산 북 딘밧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노라 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개역, 사사기 2:7-23]

같은 제목으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기자가, 즉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빼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얘기조차 그대로 다 기록했더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는 위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 보면 위인들은 전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뛰어난 점보다 오히려 부끄러운 점, 불리한 점, 인간적인 약점마저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높이기 위한 책이라면 인간의 장점을 더 부각시켰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장단점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상당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훑어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역사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아니면 역사를 왜 기록하죠? 성경공부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전제입니다. 흔히 오해하기를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아주 순진하게 들립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흔히 사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관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사료라고 합니다. 사료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관입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나라의 모양을 토끼라고 합니까? 호랑이라고 합니까?

토끼라 하다가 지금은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모양이 좀 바뀐 모양이죠? 왜 우리나라 모양을 토끼라고 했다가 지금은 호랑이라고 할까요? 땅은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자꾸 바꿉니까? 대보 등대가 있는 저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릴 때는 토끼 꼬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토끼 꼬리라고 하지 않고 호미꽃이라고 하대요. 호미는 호랑이 꼬리겠죠? 왜 똑같은 땅을 두고 토끼라고 했다가 호랑이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가리켜 토끼라고 했죠? 일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순하디 순한, 싸울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싶어서 일본 사람들이 토끼라고 했는데 우리는 멋도 모르고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속셈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호랑이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모양이 무엇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끼보단 아무래도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국토를 가리켜 호랑이 같다고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은 토끼같이 생겼다고 자꾸 그러합니다.

역사를 볼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자료들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 버리고 일본 사람들 구미에 맞는 것만 골라 뽑아서 역사를 새로 구성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해방된 이후 그 식민지 사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써 놓은 우리 역사에 지금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 기록하느냐? 명백한 것은 사실대로 기록하려고 하지만 대체로 자기 민족 혹은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나쁘냐를 나타내기 위해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역사는 가급적 길게, 가급적 아름답게, 멋지게 기록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나라 역사는 가급적이면 축소시키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를 단군조선이라 말합니다. 단군조선이 과연 우리나라 역사냐 중국 역사냐? 사실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라 하기가 참 곤란한 구석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로 인정합니다. 가급적이면 길게 잡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쯤 되죠?

4,300년.

4,300년 하시면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물으면 4,300년이라고 잘 안 하는데요?

반만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이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었고 지금도 반만년입니다. 그 역사는 왜 늘어나지 않고 계속 반만년입니까? 지금은 4,300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4,300년에서 조금 모자랐습니다마는 4,300년이라 하기보다는 반만년이라면 좀더 커 보이는 모양입니다. 4,300년이 큼니까? 반만년이 큼니까? 반만년이라고 하는 것이 더 길어 보이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삿근은 숫자를 줄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9,000원대'라고 많이 써 붙여 놓았더라구요. 9,000원대 대리운전이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9,900원요.

9,900원이면 10,000원짜리 주고 100원 거슬러 받겠습니까? 그냥 주고 끝나겠습니까? 실제 요금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면 많아 보인다 싶으니까 어쨌든 9,900원이라고 요금 책정을 해 놓고 광고할 때는 '9,000원대'라고 합니다. 마치 9,000원쯤 되어 보이는 것 같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줄이려고 요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역사는 4,300년임에도 반만년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역사를 좀 길게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동명성왕, 해모수,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 역사책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역사책에 들어가기도 했다가 때로는 빠지기도 합니다. 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할까요? 역사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책에 집어 넣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것만 기록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해질 때는 이런 이야기가 빠졌다가 우리 역사를 좀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강해지면 이런 이야기들이 또 역사책에 슬그머니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합니다.

일본 교과서 개편에 대해서 시끌벅적합니다마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정도 차이일 뿐 어느 나라건 다 있습니다. 백제가 아주 아주 옛날에 지금 북경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백제가 한 때는 아주 왕성한 나라였대요. 그래서 중국의 북경 근처를 식민지로 삼았답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조금은 있는가 봅니다. 공인을 받지 못한 채 일각에서 그렇게 한 번 주장을 하고 끝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펄쩍 뛰겠지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쪽지대에 옛날에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 역사는 좀 더 강하게, 넓게, 크게 기록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 번조 사건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글자를 파내고 엉뚱한 글자를 붙여 가면서 번조하려고 애를 씁니까? 자기들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보다 어쨌건 우월하게 기록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개인 가정의 족보도 마찬가지고 위인전을 기록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할 때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에 이스라엘 민족이 공헌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로지 그 노예생활의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울부짖은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해외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일본과 투쟁했던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애굽군대와 싸운 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비교해 보아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저 괴롭고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것밖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자기 민족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누구 누구가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을 좀 남겨 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서두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조건이 출애굽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지 이스라엘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자신들의 어떤 공로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결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그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며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오는 걸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사건마다,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 40년을 살게 됩니다. 사실은 광야 40년이지만 그들이 제대로 왔으면 한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00만 대군이 움직인다 해도 열흘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그 곳을 왜 40년이나 방황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또 반역하다가 결국은 “좋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반항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도저히 못 가겠다. 난 따로 갈테니까 모세야 네가 인도해서 네 백성을 이끌고 내가 가거라 난 함께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못 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만약에 동행을 하면 “가다가 뿔김에 전부 죽여

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난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못 하겠으니까 네(모세)가 인솔해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해도해도 너무 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라는 표본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같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렇게 위대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말을 이렇게 지독하게 안 듣다가 이렇게 혼이 났다는 기록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묘한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 중에 큰 일은 우선 여리고 성의 함락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작전을 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죠? 소리질러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면 그 다음 성에 가서도 소리를 질러야지요. 그 다음 전쟁 치를 때 소리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여리고 성이 소리질러서 무너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왜 무너졌죠? 뽕뽕이를 돌아서? 뽕뽕이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면 그 다음 성에 가서도 뽕뽕이를 돌아야죠? 돌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해서 무너뜨렸다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들은 싸울 줄도 모르냐? 전쟁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짓밖에 안 했다. 무너뜨린 것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 어났다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요. 벨호론 골짜기에서 아모리 군사들을 추격할 때 해가 넘어 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해가 넘어가지 않고 달도 중천에 그냥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많이 무찔렀습니다. 그 전투에서 가장 많은 적군을 누가 무찔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어디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고요?

자기들의 칼에요.

다른 전쟁에서 그런 적이 있지만 이 때는 우박에 맞아 죽은 군사나 구덩이에 빠져 죽은 군사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군사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군사와 구덩이에 빠져 죽은 군사는 누가 죽인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잘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뒤를 다 돌봐주셨다는 기록이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참 은혜스럽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도와주셨구나’ 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민족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만 기록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맨 마지막을 한 번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이 주는 느낌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는 말을 묻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서 본 듯하지요?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어디서 본 구절입니까? 어디서 본 듯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적들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그들이 죽고 나자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당대에 위대한 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사사기니까 사사기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네가 밟는 땅을 다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할 일은 땅을 돌아다니며 밟기만 하면 됩니다. 밟든지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우는 시늉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철병거가 무서워서 이것을 다 점령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싶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들이 남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요약한 부분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그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압제를 당한 기간이 7년이나 20년으로 조금 짧습니다. 그렇게 이민족의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40년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행복하게 지냈던 기간이 40년이고 고통받는 기간이 보통 7년 내지 20년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기간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들이 죽고 나면 또 돌아섰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위대한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는 데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더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숭배했다가 이민족의 압제를 받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은 한 번만 있어도 충분히 교훈을 받지 않을까요?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 7번쯤 반복됩니다. 7번이라고 해야 되는지 8번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한 7번쯤 똑같은 사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에 재미를 느껴서 하나님도 몰라라 교회도 몰라라 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망하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더라” 이런 경험은 평생에 몇 번이면 됩니까?

한 번

한 번 해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경험은 없는 게 잘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은 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있다면 두 번은 안 그럴 겁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만 있어도 두 번은 안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 있었다면 세 번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그 기록이 7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안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안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기드온이 되겠지요? 기드온의 위대한 일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위대한 업적이 소개되기 전에 기드온이 정말 바보같았다는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억에 잘 남아있지 않지요? 성경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기억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였던가 위대한 일을 남기기 전에 바보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앞 부분이니까요. (설교란에서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를 참고하세요)

사사들 중에 이 사람도 사사인가 하는 분도 있어요. 삼손이지요. 사사란 민족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손이 진짜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삼손? 이야기로는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꺼리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가 자기 혼자 여자만 보면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눈 뵈히고 힘도 다 잃어버리고 잡혀가서 혼자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삼손도 엄연히 사사의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도대체 무얼 했느냐 싶어요. 정말 웃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 좋게 보지 마세요. 가끔 웃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손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왜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뒷편에 보면 부록같은 이야기가 몇 개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성년자가 읽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요? 성경에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추악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까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전도사가 첩을 두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첩이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데려 오려고 가서 데려오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레위인이 분통이 터져 시체를 열두 토막으로 나눠 가지고 지파별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온 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죽여 버렸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결론은 21장 25절입니다. **‘사람이 각 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요?

지 멋대로!

맞습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래서 엉망진창인 세상이었더라. 그것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다른 성경도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면들이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로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끝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다윗왕과 솔로몬왕 때에 국가로서는 큰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그 가정사를 들여다 보십시오. 다윗은 가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과 딸 사이에서 성폭행 문제가 대두되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지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날뛰지를 않나, 그 아들이 왕의 후궁들을 대낮에 겁탈하는 장면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역시도 참 부끄러운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요. 갈라져서 이후에 탄생하는 왕이 합쳐서 39명입니다. 왕조가 둘로 갈라지는데 남쪽 유다는 한 개의 왕조에 왕이 20명 나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9왕조에 왕이 19명 나옵니다. 9왕조에 왕이 19명이란 말은 한 왕조에 왕이 평균 두 명밖에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암살이 되거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19명이나 등장합니다. 남쪽하고 합쳐서 총 39명의 왕입니다. 그 39명의 왕 중에서 성경에서 선하였더라고 표현하고 있는 왕이 몇 명쯤 될까요? 다섯 명입니다. 선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남쪽 유다 20명 중에서 5명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전부 악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의 결말이 장차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내다 보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얼마나 경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때 그때마다 보내져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그런 경고에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옆으로 옆으로 빠지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나라가 망해 버렸다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특히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마지막 왕은 눈알이 뽀힌 채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간 걸로 역사가 막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하게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역사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대한 결론으로 이사야 1장을 한번 봅시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잘 밝혀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이사야 1:2~4)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뭐와 같다는 것이죠?

짐승보다 못하다.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입니다. 어느 나라가 자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로 만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역사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성경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후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 그런 대로 자기 민족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카비 가문에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 장렬하게 싸웠던 이야기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과 성경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록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남기려고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쓰기는 유대인들이 썼죠. 그 기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사겠느냐 해서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요 약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불륜의 역사입니다. 특이한 역사이긴 하지만 다른 민족들이 본을 보거나 따라야 할 모범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멸망해 버렸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을 쪼개지 않고 겉만 훑아 본 적이 있습니까? 수박 껍데기에만 혀를 한 번 대 보신 적이 있냐고요? 단맛이 좀 물어 있을까요? 이 여름에 수박을 쪼개지 않고 껍데기만 빨고 있는 것은 세상에, 세상에 불쌍한 것입니다. 쪼개셔야지요. 속을 먹어야지요. 성경이 나쁜 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좋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읽으면 아무래도 남는 게 있겠지 하고 읽으시면 수박 껍데기 훑는 정도의 맛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해 보면 껍데기와는 전혀 다른 단맛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맛을 여러분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